

보도자료

2024년 7월 16일 인천 2024-38호
이 자료는 7월 17일(수)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 매체는 7월 16일(화)
17:00시부터 취급 가능

제 목: 2024년도 한국은행 인천본부-인천연구원 지역경제세미나 공동개최 결과

□ 한국은행 인천본부(본부장 김규수)는 인천연구원과 함께 2024년 7월 16일(화) 웨라톤그랜드인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천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한국은행 인천본부 김규수 본부장의 개회사, 인천연구원 박호균 원장의 환영사, 인천대학교 옥우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 한국은행 인천본부 김규식 과장, 인천연구원 유근식 연구위원이 각각의 세션에서 발표하였으며,

토론에서는 인하대학교(오준병 교수), 인천대학교(이장연 교수), 인천시청(명삼수 재정관리담당관), 인천상공회의소(유영석 경제진흥실장), 인천연구원(민규량 연구위원)의 전문가들이 발표 주제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2024년도 한국은행 인천본부-인천연구원 지역경제세미나 개요
2. 개최 배경 및 발표 주요 내용

문의처: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이현진 팀장, 김규식 과장
Tel: 032-880-0031, 0032 Fax: 032-880-0048 E-mail: incheon@bok.or.kr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지역본부>인천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붙임 1)

**2024년도 한국은행 인천본부-인천연구원
공동개최 지역경제세미나 개요**

□ 주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천경제의 과제

□ 일시: 2024년 7월 16일(화) 14:00~17:00

□ 장소: 웨라톤그랜드인천호텔 그랜드볼룸(3층)

지역경제세미나 진행 순서

구분	시간(안)	내용
I. 등록	13:30~14:00	
II. 개회식	14:00~14:10	개회사: 김규수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환영사: 박호군 인천연구원장
III. 주제발표 및 토론	14:10~17:00	사회자: 옥우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 세션 I	14:10~14:40	■ 장래 인구변화와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전망과 정책과제 · 발표자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세션 II	14:40~15:10	■ 인천지역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 · 발표자 김규식 한국은행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휴식	15:10~15:30	
■ 세션 III	15:30~16:00	■ 출생성비를 활용한 혼인 감소 및 저출생의 원인 분석 · 발표자 유근식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패널토론	16:00~17:00	■ 패널토론 및 질의 · 토론자 1. 오준병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2.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3. 명삼수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 4.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5.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IV. 폐회	17:00	

(붙임 2)

개최 배경 및 발표 주요 내용

(개최 배경)

□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해외언론에서 대한민국의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전세계적인 관심사항이자 생존의 문제가 됨

○ 인천의 경우 타 지역 유입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음

○ 특히 25~49세 핵심생산가능인구는 2008년 120.4만명의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24년 6월말 109.7만명으로 10만명 이상 감소하면서, 인천도 저출생·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고 있음

⇒ 이번 지역경제세미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및 인천 경제가 직면할 어려움과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래 인구변화와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전망과 정책과제, 인천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 출생성비를 활용한 혼인 감소 및 저출생의 원인 분석 등 3가지 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함

(세션 1)

□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장래 인구변화와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전망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

○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 노동수급 변화를 전망하고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성 개선을 통한 노동력 부족 완화 가능성을 검토

○ 시뮬레이션 결과 여성·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완화에 상당히 효과적이며, 생산성 개선* 또한 인력

감소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

* 여성의 생산성 수준이 OECD 수준으로 상승하거나, 연령에 따른 생산성 하락 속도가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시나리오 적용

- 향후 여성·장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및 생산성 개선, 기술변화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 등으로 20년간 총량적인 노동부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특정 부문 및 유형 노동력 미스매치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발생 가능성
-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교육 및 노동시장 개혁과제, 외국인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

(세션 2)

□ 김규식 한국은행 인천본부 과장은 ‘인천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를 주제로 발표

- 인천은 타지역으로부터 인구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로 인천 지역 산업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는 거주자 대비 80~90%에 불과하여 노동자 순유출이 발생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인천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업별 고령화 현황, 산업별 인적자본, 산업별 실질임금 수준 등을 분석
- 인구구조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산업은 60대 이상 노동자 비중이 상승하면 노동자 1인당 생산액이 하락하며, 1인당 생산액의 성장률은 50대 노동자 비중 및 60대 이상 노동자 비중 상승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 정책적 시사점으로 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해 젊은 노동자를 유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공백을 신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산업정책 및 일자리 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 높은 인력이 유출되지 않는 산업여건 조성 등을 제시

(세션 3)

- 유근식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생성비를 활용한 혼인 감소 및 저출생의 원인 분석’을 발표
 - 본 연구는 남아선호사상과 같은 성장 과정 중에 겪은 문화적 관습*이 혼인 및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
 - * 출생연도 및 출생지역의 출생성비를 개인이 체험한 남아선호사상 및 가부장적 문화의 척도로 활용
 - 분석결과 출생성비가 높았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혼인 확률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학력 여성 대비 저학력 여성의 혼인 확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다만 기혼여성의 자녀가 있을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기혼여성의 자녀 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만혼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추정
 - 정책적 시사점으로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혼인·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